

어느 건축직공무원의 죽음과 우리 건축의 현실

The Death of Official of Architecture, the Death of Architecture

김기환 / 부경대학교 건축과 교수

by Kim Ki-Hwan

며칠전 한 장의 부고를 받았다.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장을 역임한 전직 건축직공무원 한 분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였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 가슴에 이는 파문이 나에게는 감당키 어려운 충격이었다. 작년 뇌물수수로 해임을 당한 뒤 갑작스레 병을 얻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평상시 건장하던 모습을 상기해 볼 때 결국 이렇게 끝이 났구나 하는 서늘한 바람같은 회한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글에서 해임당한 공무원을 언급한 것은 그의 명예를 복권시키자거나 동정을 보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한 건축직공무원의 죽음을 통해 우리 건축계를 되짚어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지나가는 몇가지 생각을 정리해 본다.

12년전 부산과는 전혀 연고가 없던 내가 부산공업대학으로 발령을 받고 알게 된 건축인 중에 한 사람이 그였다. 그 당시 건축법규 출강을 하였는데 공무원으로 꽤나 학구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건축이나 도시계획의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시도하고자 하는 욕심이 대단했다. 성격이 모질지 않아 유연한 듯 보였지만 별로 흔들림이 없는 것도 장점이었다. 그후 진급을 계속하여 부산시 주택국장을 거쳐 건축직공무원으로는 최고직인 건설본부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던 그가 독직사건으로 명예롭지 못하게 해직을 당하고 마음의 병으로부터 몸의 병을 얻어 세상을 달리한 것이다. 장례식이 지나고 며칠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의 죽음은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격었어야 할 우리 사회의 모순이 만든 구조적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죽음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해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다음과 같은 것들은 우리 건축계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설본부장 해임의 직접 원인은 여러 곳에서 업무수행시 받은 뇌물수수가 문제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상설계심사시 받은 뇌물수수였다. 직접적으로는 부산고속철도역사 심사시 받은 돈이 문제가 되었다. 현상설계심사시 요가는 불량한 사례금. 지금도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계의 희망을 앗아가는 극히 불량한 거래이다. 요즘은 건축경기가 얼어붙어 있어서인지 현상설계에 작품이 몰린다. 심한 경우 작년에 비해 일곱 여덟배의 출품이 되는 경우가 있다. 모두 희망을 가지고 출품한다. 어느 누가 떨어지려고 출품하겠는가. 모두 붙고자 하니 열정과 욕심이 생긴다. 그 열

정과 욕심으로 작품을 열심히 만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숨쉴 틈이 소문난 몇몇 사무실에서 물을 흐려 놓으면 현상설계의 침묵은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 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흐려진 물에 그들의 꿈을 포기한다.

작년 여름, 현상설계에 심사를 나가며 받은 뇌물 때문에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고위직공무원은 해임되었다. 그러나 뇌물을 준 건축설계사무실이나 회사대표는 금액이 작아서인지 그대로 넘어갔다. 또 그 당선작도 그대로 당선이 인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는 모든 책임을 공무원만이 지는 현재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현상설계의 어두운 면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공무원해임에 준하는 벌칙이 뇌물을 준 설계사무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최소한 현상설계에 출품하는 사람들이라면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부탁인데 돈으로 표를 사서 당선이 되겠다는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삼가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그 고위직공무원이 해임된 뇌물수수자의 또 다른 혐의는 평상시 건축허가와 관련된 자잘한 뇌물이 많았다는 것이다. 지금도 정부에서 사정작업을 했다하면 건축인허가 담당부서가 첫순위에 꼽힌다. 실제로 부산만 하더라도 요몇년 사이에 사무관급을 비롯하여 무척 많은 건축직공무원이 옷을 벗는다. 주로 인허가에 관련된 뇌물이었다. 대학교수인 내가 비리공무원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가 모두 건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일진대 우리의 한부분이 계속 사회의 비리분야로 인식되고, 그들이 계속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다면 이게 어찌 바람직한 현상이겠는가. 나의 제자들 중에 기대를 하던 젊은 공무원이 쫓겨나갈 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었다.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만들어왔는데 한번에 그들의 인생과 교육의 결과와 투자된 기술이 단절되는가. 이것은 흡사 전쟁터에서 자신의 소대원을 잃어버리는 느낌이었다. 분명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에서 우리학교를 졸업한 공무원들을 보았고 그중 작년 봄 사무관으로 진급한 한 공무원에게 있는 곳을 물어보자 말을 못하였다. 옆에 친구가 집에서 쉬다고 말했다. 작년 진급 후에 모구청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후 하던 말이 생각난다. '저는 뺄도 힘도 없어서 이리 왔습니다. 요즈음 속칭 좋은 자리에는 안올려고 힘써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역시 그의 예상대로 그는 1년만에 옷을 벗었다. 전쟁터도 아닌데 왜이리 험난한지. 아니면 건축직공무원은 일회용 총알 받아인지.

그의 죽음과 더불어 또다른 회한이 하나 있다. 그가 주택국장시절 회의를 마치고 은근한 고민을 말하였다. 부산의 모주거단지의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여론뿐 아니라 자신의 양심으로도 허가하면 안될 것 같은 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다른 곳으로 진출을 가고 싶을 정도로 시달린다고 했다. 그건은 지금도 부산의 수서사건으로 선거에서 핫이슈가 되던 일인데, 본인이 거절할 어려운 부탁들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허가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건축의 일을 건축공무원이 결정내릴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라는 말을 하였다. 심한 경우 담당자를 바꾸어서라도 일은 추진된다는 것이다. 건축직공무원은 그야말로 건축의 시녀라는 표현이었다. 여기서 당사자보고 너는 왜 끝까지 양심을 지키지 못하였는가하고 말할 수 있는가. 바람부는 언덕에 세워놓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디딤목이 있는가하고 자문해 보고 싶다. 체제상에서 행정조직상에서 그들의 고유업무는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계도 그들의 버팀목이 되도록 우리의 고유분야에 대한 영역성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의 모든 향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우리가 질바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대학교수로서 공무원의 죽음과 그들의 생애를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주제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실무를 해 본 사람은 건축계에 미치는 공무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우리가 처한 극심한 한계상황의 여건을 헤쳐나 가는데 경제적인 환경변화와 더불어 행정적인 환경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과 그들의 안정적 활동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지금처럼 계속 자르지만 한다면 누가 오히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일본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건축직공무원의 역할과 조직을 연구하여 우리의 구령팅이 같은 건축행정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시작해야 한다. 계속 고급인력의 해임을 방패 삼아 인허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뇌물을 주고 인허가를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건축사는 사법처리 이전에 건축계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건축계에서 비리라는 편법의 뿌리를 자르는 일을 건축사협회에서 해 주어야 한다.